

## 직유

고백은 어떻게 생겼을까  
번지점프 위에서 사랑을 외치고 뛰어내리는 저 사람처럼 생겼을까

저 사람의 발을 붙잡고 있는 저 로프처럼  
또는 축 늘어진 저 사람의 두 팔처럼

거꾸로 보는 세계는  
호수의 표면에 머리를 적시는 일인 듯하고

인적이 드문 호수와 숲은 사람이 없어서 찾아오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고백은 답력이 있어야 하는 걸까  
로프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겠지  
결단도  
어쩌면  
지갑에 저런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목숨을 걸었다는 듯이  
높이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죽을 만큼 사랑해  
별도 달도 따줄게

죽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저기 로프에 매달린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인적이 드문 호수와 숲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 일처럼

검은 보트 한 대가 호수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